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반소정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108호

2면 대학
지난 1학기의 유성, 그리고 앞으로 2학기의 유성

3면 일반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만나는 캐릭터들 서브컬처 곧 우리 일상으로!
흡연가vs비흡연자 혐오구도, 이대로 괜찮은가

4면 사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청년 지원정책
민생회복지원금이 가져온 변화

6면 축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제 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동해 해변 위의 선율로 여름을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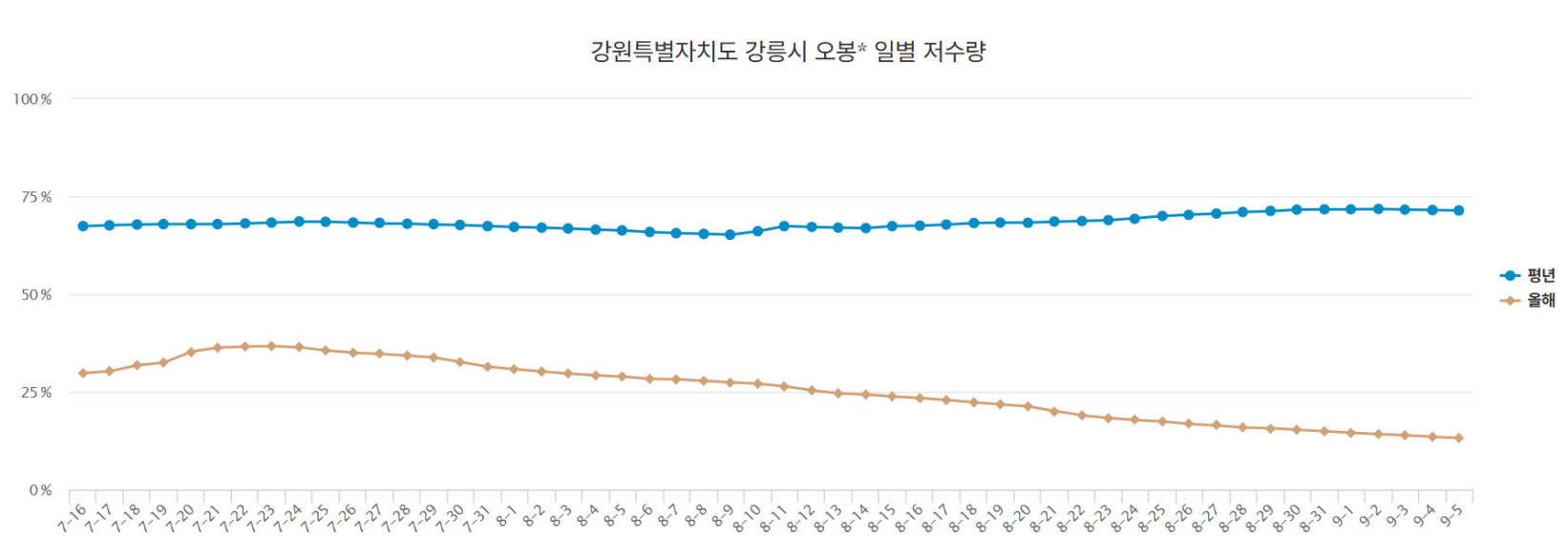
8면 광장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이 꼭 사실인 것은 아니다
월간 한줄

말라가는 오봉저수지, 기숙사생들은 '날벼락'

지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재난 속에 시작된 학기



▲ 강릉시에서 포스터를 통해 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강릉시



▲ 7월 말을, 기점을 기점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농업가뭄관리시스템 저수율 현황

나날이 말라가는 오봉저수지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들이닥쳤다. 강릉의 주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월 초 기준 10% 중반을 오가면서 제한급수(절수조치)와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개강 후 비 소식 어느정도 기대를 품었으나, 가뭄을 잠재울 만큼의 비는 오지 않고 오히려 저수율은 나날이 낮아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됐다. 타 지자체와 구호단체에서도 대량의 생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생활적인 부분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저수율 정상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

우리대학 차원에서도 물을 아껴 쓰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안 중이다. 가장 체감되는 것은 단연코 건물별 격층 단수다. 건물별 일부 수로를 단수조치하여 물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인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점점 내려가는 저수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개강한 시점에서 가뭄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학생생활관의 대처와 비대면 전환 불만이다. 학생생활관은 이미 급수량 조절을 위해 밸브 조절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후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식사 또한 간편식으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 학기와 같은 돈을 내고 보다 더 낮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특히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흉흉한 여론이다.

또한 각 학과 공지를 통해, 추후 비대면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현 상황에서 아직 부분 환불이나 보상 차원의 얘기가 없다는 점도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재난 속 시작된 2학기

가뭄이라는 재난 속, 비대면 전환이라는 카드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2학기가 시작됐다. 물이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지만 그 필수적인 요소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이 지금 놓여있다. 학생들의 관심이 대학에, 전국의 관심이 강릉에 모이는 가운데, 재난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준기 기자

개강과 함께 밀려오는 불안
'성과 중심주의'에 지친 대학생들

끊임없는 경쟁, 쉼 없는 일상

9월 개강을 앞둔 캠퍼스에 설렘보다는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많은 대학생이 '학점', '자격증', '인턴', '공모전' 등 눈앞에 놓인 과제와 스펙 경쟁에 압도되며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이제 대학생 사이에서 일종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 분위기,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는 디지털 환경, 그리고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해 온 대학 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개강이 반가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출발점처럼 느껴진다. 2024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만 19세~34세)의 32.2%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2.9%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한 비율은 64.5%에 그쳤다. 학비와 생활비, 스펙 쌓기 등으로 인한 부담 속에서 대학 교육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은둔형 청년'은 전체 청년의 약 5.2%, 전국적으로는 약 51만 명 규모로 나타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NS 속 비교, '나만 멈춘 것 같은' 초조함

이러한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은 바로 SNS다. 성과를 공유하는 '셀프 브랜딩' 문화가 확산하면서, 또래의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해외 활동 등 화려한 게시물에 노출된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괴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개인의 자존감이 외부 성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가짜 비교'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2022년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IITP)의 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청년층은 하루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자존감과 자아 만족도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NS로 인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과 기반 자아존중감(Self- worth based on achievement)' 문제로 진단하며, 타인의 시선과 비교에 지친 대학생들에게는 '자기 기준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인 지원,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원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채용 공고 외에도 직업심리검사, 진로 적성 분석, 직무 탐색 등 다양한 진로 탐색 도구를 제공해 진로 설계의 출발점을 마련해준다. 또 청년정책 종합 포털 '청년다방'(www.youthcenter.go.kr)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예산, 멘토링, 창업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간 포털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후기 등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부의 진로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1 진로상담,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모의 면접, 기업 현장실습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학생 통합 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자기 탐색 워크숍, 진로 설계 특강, 산업체 전문가 특강 등이 꾸준히 운영되어,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막막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첫걸음을 안내한다.

성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방향'

대학 사회는 여전히 빠르고 화려한 결과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게으름'이나 '무계획'이라는 낙인을 찍기 쉽다. 이런 시선 속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가려는 학생들은 종종 외면받거나 스스로 좌절하기도 한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는 말조차 공감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성과중심주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와 함께 직면한 문제다. 비교와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는 다양한 성장의 형태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학생들 또한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속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 빨리'가 아니라, '더 나답게'일지 모른다.

송민선 수습기자

지난 1학기의 유성, 그리고 앞으로 2학기의 유성

제39대 총학생회 '유성' 당선,
설화 출신 임원진 중심 운영

총학생회장,
"과정의 진정성이 변화를 만든다" 강조

2학기 각종 행사와 제도 개선 추진 예정

설화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유성

작년 말 진행된 2025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중,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총학생회 후보 '유성'이 53.94%의 투표율(찬성 77.4%, 반대 8.4%, 기권 14.2%)로 당선됐다. 당선자는 총학생회장 박보연(대기환경과학과 22학번), 강릉 부총학생회장 양동호(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학번), 원주 부총학생회장 김상진(자동차공학과 19학번)으로, '유성'이라는 이름에는 흐를 유(流)와 별 성(星)을 사용하여 '빛나는 꿈, 흐르는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총학생회와 다르게 유성은 후보를 포함해 여러 임원진이 작년 총학생회 '설화'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박보연 총학생회장은 설화의 기획부, 양동호 부총학생회장은 사무부, 김상진 부총학생회장은 체육부를 맡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 덕인지 1학기 당시, 총학생회의 주요 업무인 행사 기획과 운영 부분에서 일부 동아리와 참여학생에게 공지가 조금 늦게 전달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질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1학기가 지나고, 이제는 후반전.
총학생회장에게 묻다

어느덧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됐다.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이제 총학생회 업무의 후반전에 임하게 되는 시기이다. 남은 임기는 사실상 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총학생회가 느꼈던 것,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 2학기의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은 박보연 총학생회장과의 일문일답.

Q1. 2025년 제39대 총학생회 유성이 활동한 지 어느덧 반년, 학생회를 일선에서 직접 맡아보니 어떤가?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대표성을 가진 위치가 아니라, 모든 학우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심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반년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때로는 갈등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며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 갈 때마다, 학생회는 결국 '학생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질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했다. 그 당연한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한다.

Q2. 지난 반년간 총학생회 주관의 여러 행사가 있었다.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어떤 것이었나?

아무래도 2025 대동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서로 다른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학우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대동제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본인 역시 충분히 알고 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저 또한 비교적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만큼 부스와 주점 등 다른 부분에서라도 학생회의 노력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만큼, 학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즐겨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Q3. 성과를 떠나 매년 총학생회에 대한 무능, 무의미하다는 시선과 인식은 반사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충분히 이해한다. 학생사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쌓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회는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을 하려 했는가'도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의 투명성과 진심이 쌓일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 유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에도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학생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

Q4. 2학기가 시작됐는데, 어떤 행사나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나?

우선 가장 큰 행사들로는 강릉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한마당 대잔치, 강원대학교와의 e스포츠 교류전, 그리고 GWNU 체육대회가 있다. GWNU 체육대회는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행사인 만큼 기획 중에 있다.

추가적으로는 진로 및 창업과 관련하여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준비 중이며, 강릉 캠퍼스에서는 야식 행사, 원주 캠퍼스에서는 간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 양 캠퍼스 모두에 해충 퇴치기 설치도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학생회칙 개정, 그리고 학회비와 관련하여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Q5. 2학기 말을 기점으로 유성의 남은 총학생회 기간도 곧 끝나 간다. 잔여 임기를 두고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유성이 출범하며 약속드렸던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사회'를 끝까지 추구하겠다.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성은 우리 공동체가 가진 가능성을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다.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유성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며, 학우 여러분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언제나 학생 곁에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유성
사진= 총학생회 유성

총학생회 유성,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노는 총학생회', '노련한 총학생회', '나쁘지 않았던 총학생회' 등등 매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리곤 한다. 약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이다. 총학생회 유성은 어떻게 기억될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억되고 싶을까. 반은 학생들의 몫이고 반은 총학생회의 몫이다. 남은 기간도 길다면 길다. 이 기간 동안 본인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학생들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준기 기자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ROTC

ROTC란?

학군사관후보생(ROTC)는 학생들이 재학 중 군사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ROTC를 통해 소위로 임관할 때 7급 국가직 공무원 수준의 보수 체계를 적용받으며, 중위로 복무 시 6급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

주요 활동 "강인한 체력과 리더십"

ROTC 후보생은 2년 동안 교내에서 전술 및 군사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총 3회의 입영훈련(기초군사훈련 4주, 전투지휘자훈련 4주, 야전지휘자훈련 4주)을 이수하여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내·해외 전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 및 훈련은 국방부의 지원 하에 무료로 제공된다. 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리더로서 자질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ROTC만의 장점 및 혜택

ROTC는 후보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국방부 지원으로는 입단과 동시에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 원, 연 261만 원 상당의 교보재비 및 생활지원금(월 분할 지급), 입영훈련 중 지급되는 봉급 월 150~160만 원이 있다. 또한 군/민간 제휴 콘도 및 전국 PX(군마트) 이용도 가능하다. 대학 내 지원으로는 기숙사 우선 배정, 우수 ROTC 장학금 최대 140만 원, 국내·외 전사적지 탐방 전액 지원, 근로장학생 최대 200만 원 지급, 해람스포츠콤플렉스 1+1 이용, 미국 ROTC 리더십 연수 장학금(150만 원 상당) 등이 있다.

모집 및 지원 안내

매년 3월, 9월 인터넷과 학교 내 학군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20~27세 이하인 자, 4년제 학과 1~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3학년 재학생,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 학점이 신청 학점의 80% 이상이고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이다. 2학기는 9월부터 모집하므로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지원해 보자.

ROTC에 대한 Q&A

Q: 요즘에도 ROTC 많이 하나요?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의 학군단 정원은 기수별로 28명이며, 현재 3학년인 65기가 28명, 2학년 66기의 경우 선발자가 이미 27명이며, 지원자의 경우 67기를 포함하여 75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장교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초봉 인상, 정년 연장 등 여러 개선안이 검토하고 있어 경쟁률은 다시 증가 중이다.

Q: 군사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면 공부나 개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학업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특히 입영훈련의 경우 방학 중에 진행되어 학기 중 학업에 지장이 없으며, 실제로 많은 후보생들이 학과 성적과 ROTC활동을 훌륭히 병행하며,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받고 있다.

Q: 졸업 후 군 복무 기간이 길다고 들었다.

ROTC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로, 병사로 입대하는 것보다 10개월 정도 긴 편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장교 과정(육군사관학교 10년, 3사관학교 5년)보다 짧으므로 이점이 있다.

Q: 체력이 약하면 지원할 수 없는지.

물론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입단 후 충분히 향상할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Q: ROTC에 가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ROTC는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뒤 진로에 제한이 없다.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 있으며, 장교의 경험은 면접 시 경쟁력을 높여준다.

Q: 여자도 ROTC에 지원할 수 있나?

가능하다. 현재 여학생들 또한 ROTC에 많이 지원하여 활동 중이다. 성별 구분 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ROTC는 단순한 병역 이행 수단이 아닌, 리더십을 기르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과정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은 사람, 남들과 다른 20대를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ROTC는 더없이 값진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리더를 만든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김영준 기자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만나는 캐릭터들 서브컬처, 곧 우리 일상으로!

무언가 색다른 편의점 상품들

'토키의 제멋대로 크럼블 브라우니',
'유우카의 알찬 정식'

최근 편의점을 들리다 보면, 실물 사진과 이름만 있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르게 다양한 캐릭터 그림이 삽입된 상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명도 새로움보다는 종종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해당 상품들은 다름이 아니라 대게 서브컬처 업체와 함께 기획한 콜라보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동안 제휴를 맺어 판매되는 것이다.

기존에 이러한 서브컬처적인 요소들은 극히 일부의 소비자, 특정 팬덤만을 겨냥한 굉장히 마이너한 산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2023년을 전후로 여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인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확장을 진행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의점과 같은 일상 속 유통 채널에까지 녹아든 것이다.

서브컬처와 일상의 조화를 주도하다 블루아카이브

국내에서 이러한 서브컬처의 일상화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작품은 단연코 넥슨사의 '블루아카이브(2021)'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달콤커피와 프랭크버거와 같은 강소 프랜차이즈와 오프라인 콜라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콜라보는 기간 중에 특별 메뉴와 굿즈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는 게임 유저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서브컬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추후 이디야와 맘스터치 등의 거대 프랜차이즈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인 GS25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영역을 넓혀갔다.

특히 작년 4월에 진행된 삼성 갤럭시 24와의 콜라보와 올해 6월에 진행된 무신사와의 콜라보는 기존의 음식점과 일반 소매점 위주로 진행됐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색적이었다는 호평이 많았으며, 홈그라운드인 한국에서의 활약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블루아카이브와 GS25의 2차 콜라보 사진=GS25



▲ 붕괴스타레일과 이디야커피의 콜라보 사진=이디야커피

업계 1위의 위엄. 미호요

주로 자국에서 콜라보를 진행하는 넥슨사와는 다르게 모바일 서브컬처 업계 1위인 중국의 미호요사는 국경을 넘어 활약하고 있다. 특히 넥슨사가 블루아카이브만을 내세우는 것과는 다르게, 미호요사는 자신들의 여러 대작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신(2020)은 피자알볼로와 메가커피, 붕괴:스타레일(2023)은 맘스터치와 이디야커피, 젠레스 존 제로(2024)는 프랭크버거 등과 콜라보를 진행했으며, 이중 붕괴:스타레일의 경우에는 블루아카이브와 비슷한 시기에 본인들도 삼성 갤럭시 24와의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류에 편입한 서브컬처, 이젠 더 이상 '서브'가 아니야

애니메이션과 도서, 코스플레이와 같이 서브컬처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만 유통되는 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을 발판 삼아 성장하고, 해당 IP를 패션과 식품, 전자 등 다양한 산업과의 공격적이며 이색적인 콜라보를 통해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다가왔다.

이러한 변화에 '취향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시대적 흐름까지 합세했다. 단순히 제품이 아닌 세계관을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시점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서브컬처는 더이상 서브가 아니다. 주류에 편입한 만큼 그 성장세와 영향력은 우리와 동떨어진 변방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화의 이야기다.

이준기 기자

흡연자 vs 비흡연자, 혐오 구도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역 광장 일대 금연 구역 지정

서울시 중구청에서 지난 6월, 서울역 광장 일대와 인근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청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 3천㎡,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 3,800㎡로 총 5만 6,800㎡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 8개 규모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그간 무분별한 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 부스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된다.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고려해 흡연 부스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흡연 부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흡연자와 개방형 흡연 부스로 인해 여전히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다는 비흡연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또한 흡연 부스 내부가 아닌, 바로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와 단속원 간의 실랑이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답으로 떠오른 스마트 흡연 부스, 다만

이에 서울특별시는 담배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음압 설비를 갖춘 일명 스마트 흡연 부스 보급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흡연 부스는 개방형, 부분 개방형, 밀폐형 총 3종으로 사회 갈등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건 밀폐형 흡연 부스다. 청량리역 광장에 시범 설치된 밀폐형 흡연 부스는 고성능 공기 정화 시스템, 자동문, 에어컨, 재떨이까지 갖춘 하이엔드 스모킹룸이다.

모든 것을 갖춘 만능 흡연 부스이지만,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에 흡연자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특히 밀폐형 흡연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부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 투자인가?'라는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흡연 문화는 안전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우리 대학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우리 대학의 흡연 부스는 대부분 개방형 흡연 부스로, 위치도 통학로 근처에 있어 비흡연자 학우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부스 밖 흡연이다. 부스가 좁은 탓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면 대부분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근처를 지나가는 비흡연자 학우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의 한 학우는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다", "흡연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 흡연부스 밖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라고 말하며, "흡연부스는 담배 연기가 공공장소에 퍼지지 않도록 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에게는 정해진 공간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하지만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러한 설치 목적이 무색해진다"라고 덧붙여 흡연 실태를 지적했다.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과 학교 당국의 제도적 차원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청량리역 광장 스마트 흡연 부스 사진=서울특별시

갈등의 연결고리, 해결 방안은?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선진화된 흡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흡연 공간과 금연 공간을 명확히 나누는 분연 정책을 펴고 있다. 대다수의 실내 장소와 지붕이 달린 공간은 금연 구역으로 철저히 규정하고, 위반 시 한화 약 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는 흡연권을 크게 보장해 주고 있다. 일례로 거리에 약 100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된 휴지통에는 재떨이가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지정된 흡연 공간은 수시로 깔끔하게 청소된다.

앞선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 대학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 배울 점은 있다.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점은 선진화된 흡연 문화로 향하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과 학교의 정책, 비흡연자의 존중으로 조금 더 나은 우리 대학의 흡연 문화를 기대해 본다.

권혁주 기자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

대통령실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소비 쿠폰 발행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지난 7월 상시로 전환됐다.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응해 단발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중앙 정부 차원의 항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에 달해 2000년(6.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 거주 기반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임차 환경에 놓여 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9.8%는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비가 소득의 30%가 넘는 '고 주거비 부담' 가구도 29.5%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각각 3.9%, 26.2%)보다 높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 당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층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주거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청년층은 "자가 주택 마련이나 공공임대 입주보다 '월세 보조'가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는 공공임대 공급보다 월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크지만, 월세 지원은 여전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상시화를 제언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포용'을 강조하면서 은행들도 '포용 경제' 강조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청년들을 지원한다.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상환금을 차등 지급하여 신용 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 채용 전형을 통해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맡을 예정이다. 청년담당관은 경력과 상관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국민 참여단이 평가단으로 참여했고, 평가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분야별 청년 활동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했다. 특히 평가위원단과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지원자로 선발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소비 경제, 금융을 넘어 일자리, 창업 등과 같이 정책 기조가 여러 분야를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김동주기자

민생회복지원금이 가져온 변화, 1차 지급 마무리 이후 체감 효과와 남은 과제들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역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7월 중순에 지급됐다. 특히 해당 정책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 속한 청년층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고정적인 지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겐 40~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장기간의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짧고, 대형마트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니타 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를 냈지만,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1차 지급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만큼, 2차 지급 이후에는 재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일괄 제외된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대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후 청년층 대상 맞춤형 정책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2차 지급이 9월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재인 수습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30만 원 (+3만 원 / +5만 원)	40만 원 (+3만 원 / +5만 원)
2차 추가지급	-	+ 10만 원		
합계	15만 원 (18만 원 / 20만 원)	25만 원 (28만 원 / 30만 원)	40만 원 (43만 원 / 45만 원)	50만 원 (53만 원 / 55만 원)

1차)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2차)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3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출처: 행정안전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 사진= 토스뱅크

민주시민 교육의 공백, 다양성포용

세계 속 다양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은 우리 사회에게 '다양성 수용'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성 수용과 민주적 공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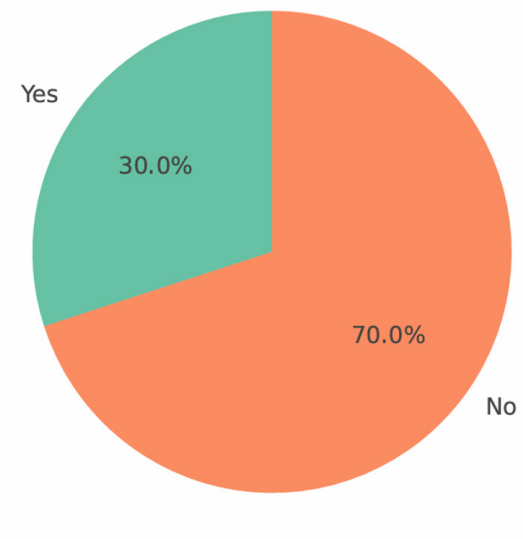
해당 주제로 엄경호 강사의 그룹은 2024학년도 2학기 교양교육 소그룹 활동 중 '다양성 포용을 위한 민주시민'을 주제로 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다양성 인식 간의 간극을 드러낸 설문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를 통한
다양성 포용 교육의 필요성 대두

88%의 여학생, 76%의 남학생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세계관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점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포용력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민주시민/다양성 교육 경험의 유무 조사에서 남녀 모두 30% 이하의 비율로 경험이 없음을 보였다. 또한 학교 커뮤니티에서 다양성 포용 분위기 형성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이 30% 이하인 점을 통해 다양성 포용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결국, 해당 조사 결과에서는 교육 경험 없이는 '포용적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 이해 수준을 넘어,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의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가치이다. 현재 세계화로 점차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좁아짐에 따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의 핵심 가치 역량으로 지속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편성되는 것이 시급하다.



▲ 다양성 민주시민 교육 경험 여부

반소정 기자

경제발전과 자연보호는 함께갈 수 없는가



▲ 경포호 분수설치 찬성 현수막 사진= 프리진뉴스

경포호 인공분수에 이어 대관람차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다. 강릉시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호 인공분수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대관람차 조성 민간 부분 공동사업 제안자 공모'를 진행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강릉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연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포호·가시연 습지는 대략 4,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양한 생명을 키워내는 역할을 해왔다. 반대 시민단체들은 인공구조물이 들어와 경포호의 자연환경을 해친다면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5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설명하고, 추후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대우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일부 강릉시민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인공분수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강릉시민이 좋아할 것이고, 세금을 더 걷어서 산이나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효율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공분수와 대관람차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합의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훈 수습기자

과거와 현재의 전쟁, 우리는 안전한가

21세기, 다시 불타오르는 지구촌

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접어들며 세계는 다시금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국제사회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십 년간의 그림자 전쟁을 끝내고 서로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며 전면전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었고,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을 넘기며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고착화되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의 오랜 분쟁 지역인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도 무력 충돌이 재발하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들은 21세기 국제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 한국전쟁 사진=조선일보



▲ 이란-이스라엘 사진 사진=Hussein Malla

놀랍도록 닮은 전쟁들-비극의 공통점

70여 년 전 한반도를 휩쓴 6·25전쟁과 현재진행형인 세 개의 전쟁은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닮은 비극의 공통점을 품고 있다.

첫째, 이념과 역사가 얽힌 뿌리 깊은 갈등이다. 6·25전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서 발발했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NATO의 동진이라는 안보 문제와 민족주의, 주권 수호 의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란-이스라엘 분쟁 또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과 유대 국가 이스라엘 간의 종교적,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라는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새롭게 발발한 태국-캄보디아 분쟁 역시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민족감정과 역사적 영유권 주장이 충돌한 결과물이다. 이 전쟁들 모두 단순히 영토를 둘러싼 분쟁을 넘어, 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을 건 싸움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둘째, 강대국 또는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6·25전쟁 당시 소련과 중공군이 북한을, 미국과 UN이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에 맞서는 중이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경우, 직접적인 강대국 개입보다는 아세안(ASEAN)과 같은 역내 기구의 중재 역할이 시험대에 오르며, 주변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쟁의 향방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분쟁은 더 격화되고 장기화하는 비극을 낳는다.

셋째, 가장 큰 피해자는 무고한 민간인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민간인이다. 6·25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속에서도 양국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 주민들은 포격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전쟁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며, 그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긴다.

시대와 양상의 차이점-무엇이 달라졌나?

이 전쟁들은 비극의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쟁의 양상과 전개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재래식 전면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6·25전쟁은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무력충돌하는 전면전을 고수했지만 최근 발생한 전쟁들은 사이버 공격 및 드론을 비롯한 신무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군사를 파병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군파병보다는 경제 제재나 무기 지원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합군 파병에서 경제 제재로

6·25전쟁 당시, 국제 사회는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연합군을 파병하여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섰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대신, 러시아의 경제를 고립시키는 강력한 금융·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선택했다. 이는 확전의 위험을 피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국제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란-이스라엘, 태국-캄보디아 분쟁에서는 국제사회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전쟁으로

과거 6·25전쟁의 참상은 종군기자들의 제한된 보도를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촬영해 세상에 알리고,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상공에서 요격되는 장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마찬가지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교전 상황 역시 현지 주민이나 군인들이 촬영한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외교적 압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가시성' 증가는 국제 여론을 빠르게 형성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충돌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70년 넘게 S'휴전 국가'일 뿐,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 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의 결과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 전쟁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현실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 경제 발전도, 개인의 행복도 없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실의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방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김규완 수습기자

2025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안내

2025학년도 수업기간

1학기 : 2025. 3. 4.(화) ~ 6. 20.(금)

2학기 : 2025. 9. 1.(월) ~ 12. 22.(월)

2025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

개천절	10.3.(금)	12.12.(금)
추석연휴	10.6.(월)	12.8.(월)
추석연휴	10.7.(화)	12.9.(화)
추석연휴 대체휴일	10.8.(수)	12.10.(수)
한글날	10.9.(목)	12.11.(목)
개교기념일	11.11.(화)	12.15.(월)

09.01 ~ 09.01	2025학년도 제2학기 개시
09.01 ~ 09.05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09.19 ~ 09.19	수강신청 취소 마감
09.25 ~ 09.25	복학신청 마감(수업일수 1/4선)
10.10 ~ 10.10	휴학신청 마감(수업일수 1/3선)
10.29 ~ 10.29	수업일수 2/4선
11.11 ~ 11.11	개교기념일
11.26 ~ 11.26	수업일수 3/4선
12.08 ~ 12.15	보강기간
12.16 ~ 12.22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종강
12.23 ~ 12.23	동계방학
12.29 ~ 12.29	제2학기 성적 입력 마감
12.30 ~ 01.05	제 2학기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제 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



▲ 영화제 기념품 사진=송지훈

제 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가 8월 1일부터 사흘 동안의 여정을 마쳤다. 정동진 영화제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며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였다.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최근 강릉시 지원이 사라짐에 따라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카카오뱅크와 다양한 후원자들 덕분에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찾은 방문객 수는 27,256명이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영화제는 3일간 총 27개의 작품을 상영하였다. 첫날 개막사회는 오우리 배우와 하성국 배우가 맡았으며, 개막공연 가수로는 음악 그룹 페퍼톤즈가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독립영화제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영화제에서 시행하는 '땡그랑동전상'은 당일 상영작품 중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에 관객들이 직접 돈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돈의 액수로 시상하는 것이 아닌 '개수'로 선정 작품을 뽑는 방식이다. 다른 행사로는 '별밤우체국'이 있다. 행사장에서 영화제 굿즈인 우표와 엽서를 구입해 우체통에 넣으면 관객이 선택하여 영화제 직후 혹은 1년 후에 엽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연을 영화제 측에 보내면 아홉 팀을 선정하여 모기장과 돗자리를 대여해 주는 '로얄석의 유혹'이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인 만큼 모기와 같은 각종 벌레들과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영화제 측은 쑥불을 피워 모기를 놓아주고, 가벼운 우천 예보가 있다면 우의를 나누어 주는 등 관객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였다. 아울러 강릉역,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에 정차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 입장료가 무료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점이 관객의 흥미를 끄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영화제의 운영은 다양한 후원 업체와 굿즈 판매 수익,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8월 첫 번째 주말, 정동진에 위치한 정동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 만큼 한 번쯤 영화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공식 포스터 사진=정동진독립영화제

송지훈 수습기자

동해, 해변 위의 선율로 여름을 노래하다

여름이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곳, 강릉. 하지만 강릉 너머,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낯설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도시, 동해가 있다. 올여름, 이 조용한 해변 도시가 음악으로 여름을 물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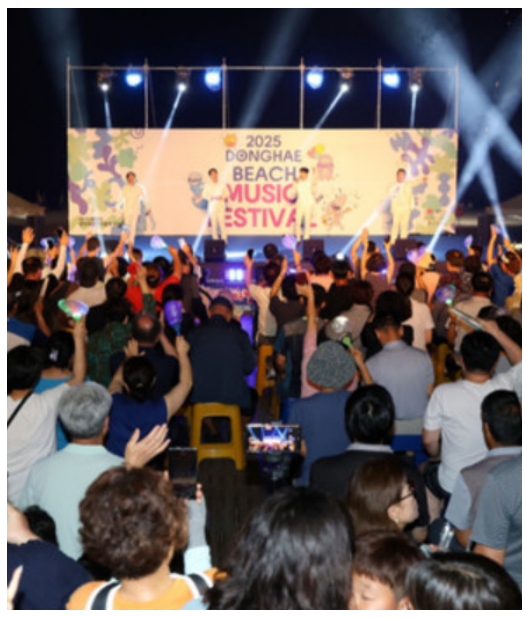
동해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규언)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추암해변과 망상해변을 무대삼아 '2025 해변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야간 문화공연을 통해 동해시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동해문화관광재단과 (사)동해예총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재단은 축제 기획과 행정 운영을 맡고 예총은 예술인 섭외와 공연 제작을 담당했다.

축제는 7월 30일(수)~31일(목)에는 추암해변 해암정 일원, 8월 1일(금)~4일(월)에는 망상해변 데크광장에서 열렸으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 야외 공연은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망상해변 공연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고, 8월 2일 토요일에는 박상민 밴드, 기리보이, 케이시, DJ 윈디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의 열기가 정점을 찍었다. 이 외에도 류지광, 요요미, 우디, 동해 출신 래퍼 김재욱, 성악가 고순정·김선진, 국악인 인하정, 지역 가수들과 동해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 힙합, 밴드, 성악, 국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그 결과, 망상해변에는 하루 동안 약 1,500명의 순수 관람객이 몰렸고, 공연장 외부에서 공연을 즐긴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3,7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날로 기록되었다.

행사장에는 특설 무대, 음향·조명 시스템, 출연자 대기 공간, 관람석, 안전휀스 등 완성도 높은 공연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사전 리허설과 안전점검, 교통 통제까지 관람객 편의와 안전이 우선시되었다. 관객에게는 야광 부채 등 현장 소품도 제공되어 더욱 몰입도 높은 관람 경험이 연출됐다.

이번 축제를 통해 동해는 단순한 해변 도시를 넘어, 고요한 자연과 지역 예술, 낭만적인 여름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악과 바다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동해다운 여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 동해 시민은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몰려와서 좋았다. 다만 무대가 작고 공간이 다소 좁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축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으며, 특히 행사 주최 측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동해의 문화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준혁 수습기자






▲ 축제 및 공연 행사 사진 사진=강준혁

2025학년도 언론원 학생기자(국원) 모집
대학 신문 /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기자(국원)을 모집합니다!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강릉 / 원주)]

- 신청 방법: 네이버 폼 (QR코드 참고)
- 기자혜택

1. 학생기자증 발급
2. 신문, 방송 원고료 등의 기자활동 장학금 지급
3. 소속 언론사 운영 공간 제공
4. 기타 언론활동 업무 지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 (033-640-2614)

가족과 연인과 함께!

명주인형극제

Myeong-ju Puppet Festival



제12회 명주인형극제, 강릉서 18개 극단 참여 성황리 개최

아동, 가족 위한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다짐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명주인형극제는 강릉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동 지역의 유일한 인형극제이다. 2014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명실상부 영동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세심한 배려에서 탄생한 명주인형극제

명주인형극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강릉문화원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영동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아동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나 공연이 현저히 부족했다. 또한 수도권과 거리도 있었기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강릉문화원에서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구상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명주인형극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시작된 명주인형극제는 10개의 작품과 4개의 극단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총 18개의 작품이 공연에 오를 만큼 규모가 확대되었다.

제12회 명주인형극제

명주인형극제는 8월 20일(수)부터 8월 24(일)까지 명주예술마당 마리공연장 1~4관과 시시공연장에서 진행됐다. 극단 ‘목동’이 〈여우, 까마귀 그리고 사자〉라는 옴니버스 형식의 인형 뮤지컬로 개막공연을 하며 제12회 명주인형극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총 18개의 극단이 무대에 오르며 인형극제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인형극제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9개씩 공연이 상연되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 위주의 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솝우화나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인형극들이 주로 상연되었다. 반면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림자 인형극이나 줄 인형극, 복합 인형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공연이 주로 상연됐다. 실제 인형극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는 아이들을 위해 인형극단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인형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거리와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됐는데, 유료 체험으로는 ‘식물인형 심기’, ‘움직이는 나무 인형 색칠하기’, ‘팔찌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 한 체험행사들이라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그 옆에는 차 만들기와 다과를 진행할 수 있는 전통적인 체험 부스도 마련이 되었다. 무료 체험 부스로는 손도장 찍기나 느린 우체통, 가면 만들기와 같은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설치됐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이번 행사를 위해 개최된 공모전에서 입선된 포스터들과 김태완 작가의 브릭 시네마가 진행되었다. 어릴 적 보았던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디즈니의 영화 속 캐릭터들을 레고 장난감으로 표현해 인형극제를 찾은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행사에 참여한 용미나 씨는 “인형극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았고,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 점이 맘에 들었다. 또한 체험 부스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체험하기 좋았다”라며 이번 명주인형극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도 명주인형극제가 열린다면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며 재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극단 ‘마롯뜨’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강릉 지역에는 총 3개의 인형극단이 있다. 그 중 2개의 극단이 올해 명주인형극제에 초청받았다. 강릉 지역 극단 ‘마롯뜨’의 최서우 단장을 만나서 이번 명주인형극제에 참여한 소감과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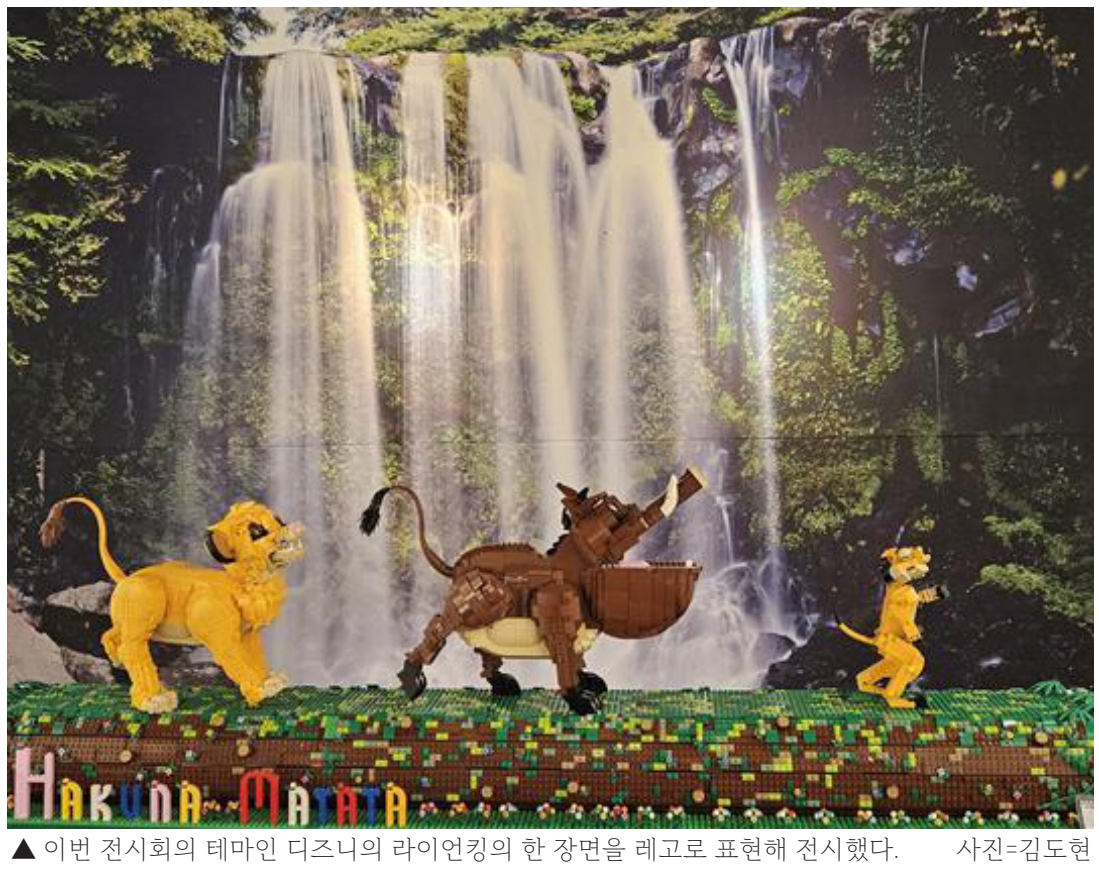
극단 ‘마롯뜨’는 2009년 가을에 강릉관노가면극을 줄 인형극으로 제작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창설됐다. 극단의 이름인 ‘마롯뜨’는 중세 유럽에서 신사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의 장식 인형을 뜻한다. 이것이 부르기에 어감도 예쁘고, 인형과 관련 있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 극단명을 마롯뜨라고 짓게 되었다.

극단 마롯뜨는 명주인형극제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원년 극단이다. 극단 자체에서는 공연하고, 최서우 단장 개인으로서는 명주인형극제 총감독과 인형극제 외부공간 조성 등을 담당했다. 때문에, 누구보다 명주인형극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주인형극제에서 진행되는 갈라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준비하기도 했다.

최서우 단장은 “공연 준비하기가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제작부터 공연에 올리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신경을 써야 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세세한 것까지 힘든 작업의 연속이다”라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심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또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객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라며 관객들을 위한 한 마디와 앞으로의 명주인형극제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많은 관객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난 명주인형극제. 그 뒤에는 강릉문화원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이번 인형극제를 기획한 강릉문화원 용은비 팀장은 “강릉시민들이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인형극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직장인들도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인형극을 준비할 테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며 참여 독려도 잊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



▲ 이번 전시회의 테마인 디즈니의 라이언킹의 한 장면을 레고로 표현해 전시했다. 사진=김도현



▲ 관객들을 위해 배우들이 무대에서 인형탈을 쓰고 연기하고 있다. 사진=김도현



▲ 실내에 마련되어 있는 다과 체험부스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도현

송지훈의 시선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이 꼭 사실인 것은 아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이지 않다. 하지만 믿음과 진실은 교묘하게 섞인 상태로 공존하며 생각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무의식적인 차별과 선입견, 혐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중사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사고는 생각보다 불완전하다. “아름다우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말들은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의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많은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아름다움과 돈’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중사고’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생각을 일상에서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잊은 것처럼 느껴진다. “진보의 적은 보수인가?” 그렇지 않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상호보완적 존재들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진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틀렸다고 말하며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들 역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뽑아야 하는 정치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뉴스 역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체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선생들의 적은 학생들인가?” 교사와 학생은 서로를 억압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교권을 올리기 위해 체벌을 부활시키는 것은 교사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갈등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를 이끌어가는 2030세대는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와도 연금과 정년 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갈등을 빚고 있고, 심지어 미래세대와도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차별과 선입견 그리고 혐오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세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박중훈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믿는 진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요즘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는 부류의 정보를 더욱 자주 접하여, 생각을 더욱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증하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인류가 알게 된 지는 800년이 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서 왕이 사라진 지 150년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실들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컷 속으로



강원대 통합까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 반대의 기류가 학교 이곳저곳에서 감지된다. 애당초 다수결로 진행됐던 통폐합 투표 또한 찬성 15표와 반대 6표로 진통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누르면 눌린다’는 식으로 일관하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반대하고 있는 시점. 과연 통합 강원대는 성공적인 결말을 맞이 할 수 있을까.

이준기 기자

소설 한 편

가족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타마짱의 심부름 서비스를 읽고



〈타마짱의 심부름 서비스〉, 제목부터 이상한 이 책은 일본의 유명 소설가인 모리사와 아키오의 장편소설 중 하나이다. “뭐야 이 이상한 제목은”이라며 비웃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다르다. ‘심부름 서비스’라는 장치를 이용해 이 책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가족’의 사랑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필자 또한 책을 읽으면서 코끝이 시큰거릴 정도였다.

〈타마짱의 심부름 서비스〉는 ‘아오바쵸’라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야마 타마미’(속칭 타마짱)가 도시에서 고향인 시골로 돌아오면서 펼쳐지는 주변 인물간의 에피소드를 엮은 소설이다. 에피소드라고 해서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타마짱의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이 중 가장 핵심은 타마짱과 새엄마인 ‘샤린’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샤린을 엄마로 인정하지 못하는 타마짱은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못마땅해한다. 이러한 감정은 독백과 속마음을 통해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그러다 어느 날 시즈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둘 사이의 감정이 절정에 다다른다. 시즈코 할머니는 타마짱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곁에서 사라지니 그녀는 더욱 우울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샤린이 자신이 알고 있던 필리핀 속담을 이용해 그녀를 위로해 주려다 오히려 타마짱의 기분을 건드리고 만다. 결국 폭발한 타마짱은 샤린에게 가족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것을 듣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샤린이 그간 뒤에서 몰래 타마짱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샤린은 돌아가신 타마짱의 어머니에게 매일 절을 올리며 아침을 시작했고, 심부름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 타마짱의 엄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알게 된 타마짱은 샤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 작품에서 날씨는 때때로 타마짱의 엄마로 묘사가 된다. 실제로 타마짱은 날씨를 보고 엄마를 떠올리곤 한다. 타마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날씨는 항상 우중충하거나 비가 왔다. 마지막에 샤린과 타마짱이 화해하며 가족의 재결합을 알리는 장면 속에서도 타마짱의 엄마 또한 하늘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듯 어느 때보다 화창한 날씨로 묘사가 된다.

‘모리사와 아키오’의 작품답게 이 소설 속에서도 등장인물, 지명, 풍경 등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모습이 금방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섬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아픔과 기쁨을 겪는 20대 여성의 감정을 섬세히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타마짱의 기분, 태도 등을 보다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모리사와 아키오’는 주로 일본의 시골을 배경으로 작품을 쓰는데, 이 소설에서도 옛 일본 시골의 모습과 그를 나타내는 소품들을 활용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일본 시골의 풍경과 모습을 통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사계절별로 바뀌는 환경과 장소는 소설을 읽으면서 더욱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에게 살아감에 있어 가족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대박을 터뜨린 ‘폭싹 속았수다’ 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큰 주제로 삼고 있다. 애순이와 관식이가 살아가는 일생을 다룬 드라마가 큰 주제이지만, 그 속에 담긴 애순 관식 부부가 자식들을 위해 하는 희생과 배려는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위 작품에서도 타마짱을 향한 샤린의 작은 배려 덕분에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열고 다시금 화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

김도현 기자

월간한줄

7

5일
日 대재앙은 오지 않았다
빗겨나간 예언

21일
죽어가는 경제, 살릴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1차 지급 시작

8

2일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4-6일
우리대학 스키부
전국구 대회서 눈부신 활약

24일
경제계의 깊은 우려 속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일
말라가는 강릉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시행

26일
보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로

30일
기숙사 학생들은 어떡하나
강릉 ‘재난사태 선포’로